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repeating pattern of concentric circles in a light blue color. The circles are arranged in a grid, with each circle centered in its respective grid cell. The circles have varying diameters,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rhythm.

---

##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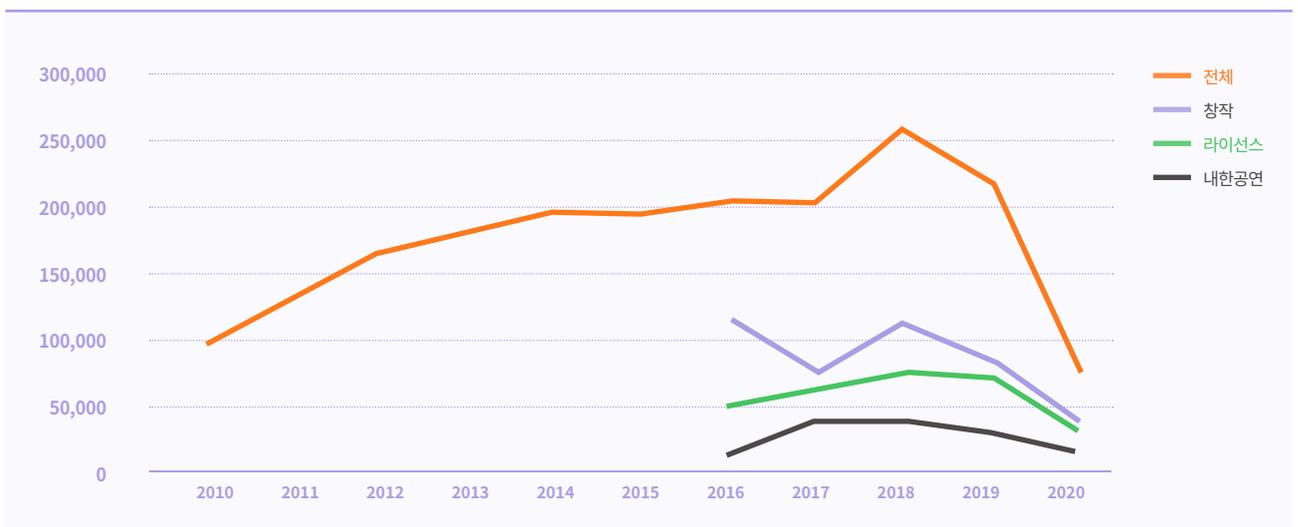
인터파크 티켓 판매 데이터로 살펴본  
2016~2020 창작뮤지컬 시장 변화

한국 뮤지컬 시장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라이선스 주도 시장이라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정설로 굳어진 명제이다. 2001년 <오페라의 유령> 이후 라이선스 뮤지컬이 한국 뮤지컬 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라이선스 뮤지컬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창작뮤지컬의 그것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를 근거로 명확하게 제시된 적은 없다. 근 5~6년 전 한 공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라이선스 뮤지컬의 매출액 비중이 70% 정도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암묵적으로 이 수치를 정설로 받아들여 왔다. 최근 창작뮤지컬 시장의 성장세가 느껴지지만 지금까지도 ‘매출액 비중 라이선스 70%설’은 수정되지 않았다. 라이선스와 창작뮤지컬 시장의 비율을 제대로 공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월간 <공연전산망> 1호 특집 기사는 인터파크가 제공한 2016~2020년 통계 자료를 근거로 창작뮤지컬 시장의 성장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창작뮤지컬은 2017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다.

\* 2016-2020년의 창작, 라이선스, 내한공연의 뮤지컬 시장 규모 통계는 인터파크에서 판매 집계된 금액과 유 무료가 포함된 관객 수만을 한정하므로 실제 한국 뮤지컬 시장 전체의 수치와는 다릅니다. 또한 인터파크 장르 분류 중 뮤지컬 2차 장르에 해당하는 어린이·가족 뮤지컬과 난버벌 퍼포먼스를 제외한 값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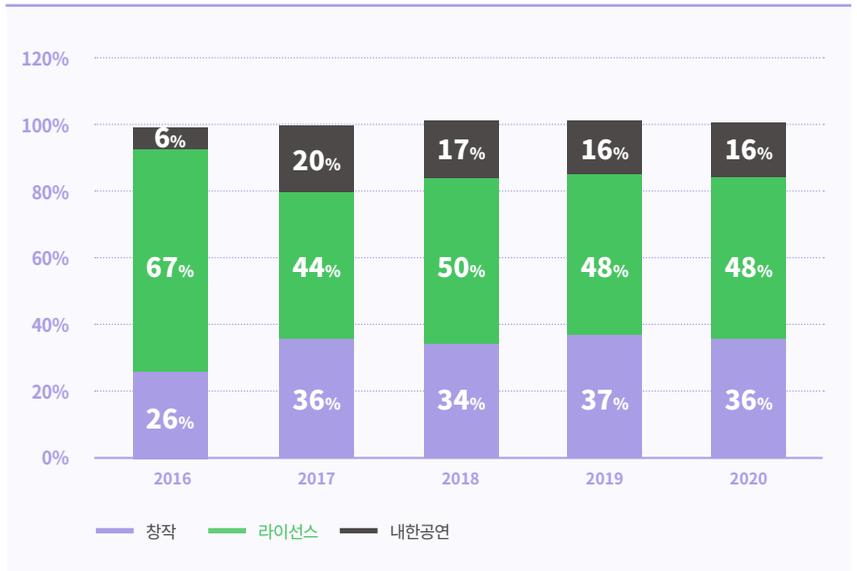
## 창작뮤지컬 시장, 드디어 베일을 벗다

2016년 라이선스 뮤지컬의 매출액 비중이 전체의 67% 수준인 것으로 미루어 ‘라이선스 뮤지컬 매출액 70%’설은 일정 수준 타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뮤지컬 시장은 2000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곤 매해 성장을 거듭했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뮤지컬 시장은 뚜렷한 성장세 없이 다소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94,530	130,000	166,100	181,100	196,000	191,500	199,300	198,900	257,130	213,740	76,563
창작							45,501	60,883	73,810	65,779	26,760
라이선스							116,683	73,186	108,738	85,250	35,762
내한공연							11,059	34,077	36,966	28,194	12,290

<표1> 2010~2020년 인터파크 매출액 (전체 금액은 어린이 뮤지컬과 난버벌 퍼포먼스가 포함된 금액, 단위: 백만 원)  
2016년 이전에는 인터파크의 데이터 분류 체계가 동일하지 않아 자료 미기재



<표2> 2016~2020년 창작, 라이선스, 내한공연 시장 비중 변화 (%)



<프랑켄슈타인> © 충무아트센터

흥미로운 일은 2017년 상황이다. 2017년 전체 뮤지컬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다. 시장 자체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구성 내용은 변화가 생겼다. 라이선스 뮤지컬의 매출액은 크게 감소한 반면, 창작과 내한공연의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6년 전체 뮤지컬 매출액에서 67%를 차지했던 라이선스 뮤지컬이 2017년 44%로 떨어진 후 50% 정도의 비중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반면 2016년 26%에 불과했던 창작뮤지컬의 매출액이 2017년 36%로 성장한 이후 36%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내한공연 역시 2017년 20%까지 성장했다가 다시 16% 정도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다.

2018년 뮤지컬 시장은 4년간의 정체를 깨고 대폭 상승한다. 2018년도 뮤지컬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지만 라이선스 뮤지컬의 매출액은 2016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작아졌다. 반면, 2018년 창작과 내한공연의 매출액은 2016년에 비해 창작뮤지컬은 1.5배, 내한공연은 3배 정도 성장했다. 라이선스 뮤지컬은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총 매출액의 약 70% 정도의 점유율을 보였던 2016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점유율 50%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 2017년 창작뮤지컬 변화의 신호탄을 쏘다

\* 2010~2020년 전체 뮤지컬 시장 규모는 매해 인터파크에서 발표한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16~2020년 뮤지컬 2차 장르 구분에 따른 창작, 라이선스, 내한공연의 뮤지컬 시장 규모 통계는 별도 집계 자료를 협조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 이전 통계는 집계 완료되지 않음) 인터파크의 데이터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후에도 월간 <공연전산망>은 예매처, 공연장,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시장 내 주요 담론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영화 산업이 해외 콘텐츠 위주의 시장에서 국내 콘텐츠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한국산 블록버스터가 등장하면서부터이다. 1993년 외국 영화 대비 한국영화 점유율(서울 관객 기준)은 15.9%였으나, 1997년 25% 선을 회복한 후 1999년 39.7%까지 올랐다.<sup>1)</sup>

1) 정종화 한국영상자료원 선임연구원, '한국형 블록버스터 '쉬리' 영화 한류, 그 시작을 알리다', 서울신문 2019년 10월 7일

한국영화 시장이 매출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었던 것은 영화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은행나무침대> 등 수십억 원대의 성공한 국내산 킬러 콘텐츠의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7년 창작뮤지컬의 매출액 점유율이 높아진 이유 역시 창작뮤지컬 킬러 콘텐츠의 등장에서 찾을 수 있다.

성공적인 흥행을 이룬 블록버스터급 창작뮤지컬로 2011년 <광화문연가>, 2013년 <그날들>, 2014년 <프랑켄슈타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들은 초연부터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블록버스터급 창작뮤지컬로 지속적으로 공연해 왔다. 2016년 120억 원대 작품인 <마타하리>와 2017년부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되는 <영웅>(초연 2009년), 그리고 170억 원대의 제작비로 한 해 대형 공연장 두 곳에서 공연한 초대형 블록버스터 <웃는 남자>(2018년 초연)가 가세하면서 블록버스터급 창작뮤지컬 라인업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되었다. 2017년은 차츰 쌓아왔던 창작뮤지컬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해였다.

<표3> 2017년 대극장 창작뮤지컬 리스트



2017년 서울 지역 1천 석 이상 공연장에 올라간 대형 창작뮤지컬은 13편이다. 이 중 네 작품이 2017년 인터파크 판매 랭킹 10위 안에 들었다. 2015년까지 인터파크 판매 랭킹 순위 10위 안에 창작뮤지컬은 한두 작품 정도가 가까스로 올라왔다. 그마저도 대부분 중하위권이었고, 심지어 2012년에는 단 한 편의 창작뮤지컬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2016년에 들어서면 창작뮤지컬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를 시작한다. <마타하리>가 랭킹 3위에 든다.

2017년에는 2위 <영웅>, 3위 <마타하리>, 6위 <벤허>, 8위 <광화문연가> 등 무려 네 편의 창작뮤지컬이 랭킹 10위권 안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편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2018년에는 초연 이후 메가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창작 블록버스터 <프랑켄슈타인>이 3위, 그리고 4위, 5위에 <웃는 남자> 예술의전당과 블루스퀘어 공연이 오른다. 2019년에는 <그날들>과 <벤허>가 랭킹 3위, 4위를 차지하는 등 블록버스터의 활약으로 창작뮤지컬의 매출액 점유율을 공고히 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빌리 엘리어트	맘마미아!	위키드-내한	레미제라블	모차르트!	팬텀	팬텀	레베카	태양의서커스 쿠자	아이다	오페라의 유령-내한
2	미스 사이공	지킬앤하이드	엘리자벳	맘마미아-내한	지킬앤하이드	태양의서커스 퀴담	노트르담 드 파리	영웅	엘리자벳	스위니 토드	모차르트!
3	지킬앤하이드	조로	시카고	엘리자벳	위키드	엘리자벳	마타하리	마타하리	프랑켄슈타인	그날들	드라큘라
4	김종욱찾기	태양의서커스 바레카이	오페라의 유령-내한	노트르담 드 파리	캣츠-내한	지킬앤하이드	킹키부츠	시카고 - 내한	웃는 남자-예술의전당	벤허	킹키부츠
5	아이다-성남	아이다	맨오브라만차	디셈버	그날들	시카고	아이다	시스트액트-내한	웃는 남자-블루스퀘어	레베카	브로드웨이 42번가
6	시카고	삼총사	황태자 루돌프	고스트	마리 앙투아네트	레미제라블	헤드윅	벤허	빌리 엘리어트	지킬앤하이드	렌트
7	쓰릴 미	모차르트	아이다	레베카	레베카	프랑켄슈타인	스위니 토드	빌리 엘리어트	노트르담 드 파리	라이언 킹 - 투어(부산)	아이다
8	모차르트!	광화문연가	닥터 지바고	그날들	고스트	맨오브라만차	몬테크리스토	광화문연가	라이언 킹 - 투어(서울)	사의 찬미	비스티
9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캣츠	캐치미이프류캔	시카고	드라큘라	노트르담 드 파리-내한	맘마미아!	지킬앤하이드-내한	시카고	맘마미아!	레베카
10	오페라의 유령-대구	김종욱찾기	잭더리퍼	몬테크리스토	헤드윅	데스노트	그날들	캣츠-내한	지킬앤하이드	마리 앙투아네트	캣츠-내한

<표4> 2010년~2020년 인터파크 뮤지컬 장르 판매 랭킹 10위(인터파크 사이트 자료)



<어쩌면 해피엔딩> © CJ ENM

대형 창작뮤지컬 이외에 다수의 중소극장 창작뮤지컬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도 창작뮤지컬의 매출액 비중을 키워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2017년은 특히 중소극장 창작뮤지컬이 좋은 성과를 올린 해이기도 했다. <어쩌면 해피엔딩>,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초연과 재연, 창작산실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레드북> 등은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인기 레퍼토리 뮤지컬이었던 <사의 찬미>, <광염소나타>, <빈센트 반 고흐> 등이 마니아 관객을 중심으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2017년 창작뮤지컬 시장이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인기 레퍼토리로 창작뮤지컬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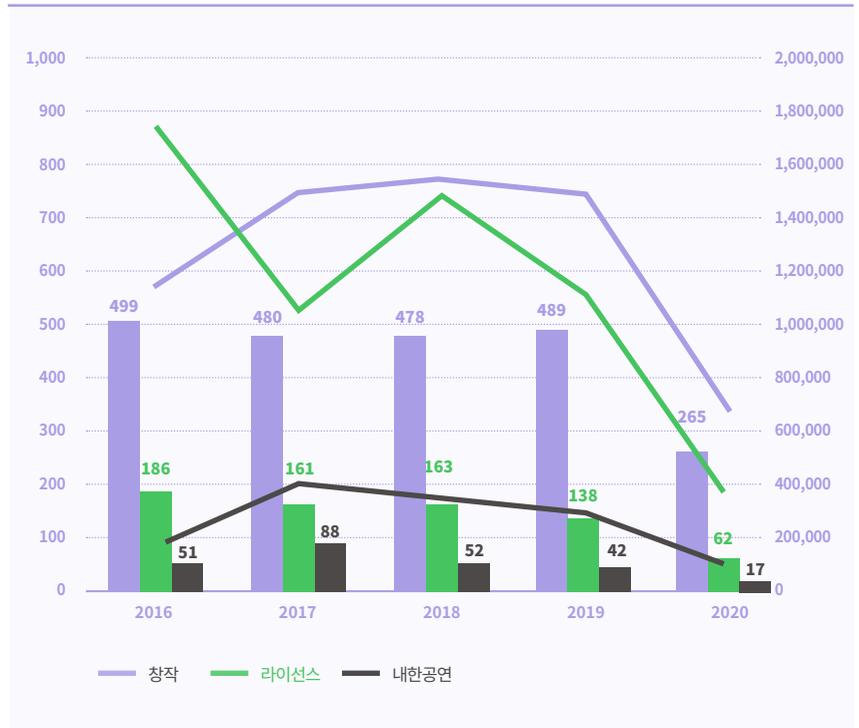
<웃는 남자> © EMK뮤지컬컴퍼니



<비스타> © 더웨이브

2020년 뮤지컬 시장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전체 시장 규모도 축소되고 기존 시장의 질서가 무너졌다. 2020년 인터파크 뮤지컬 랭킹 안에 든 창작뮤지컬은 8위인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 <비스타>가 유일했다.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소극장에서 리미티드 런 (Limited Run)으로 공연되는 뮤지컬이 10위권에 드는 것은 어렵다. 2020년 판매 랭킹 10위 안에 든 창작뮤지컬은 소극장 뮤지컬 <비스타>가 유일했지만 창작뮤지컬의 매출액 점유율은 36%로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 2019년에도 <그날들>(3위)과 <벤허>(4위), <사의 찬미>(8위)가 10위권에 들었지만 2017년, 2018년도와 비교하면 랭킹에 포함된 수나 작품 규모 면에서 떨어진다. 그럼에도 그해 창작뮤지컬은 매출액 37% 점유율을 유지했다. 2019년과 2020년의 사례를 보면 대극장 블록버스트 이외에도 든든하게 받쳐 주는 중소극장 창작뮤지컬 시장이 탄실하게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 라이선스 주도 시장의 변화



작품수	2016	2017	2018	2019	2020
창작	499 / 68%	480 / 66%	478 / 69%	489 / 73%	265 / 77%
라이선스	186 / 25%	161 / 22%	163 / 24%	138 / 21%	62 / 18%
내한공연	51 / 7%	88 / 12%	52 / 8%	42 / 6%	17 / 5%
전체	736	729	693	669	344

<표5> 2016~2020년 창작, 라이선스, 내한공연 뮤지컬 작품 수

관객수	2016	2017	2018	2019	2020
창작	1,139,762 / 37%	1,492,616 / 50%	1,545,442 / 46%	1,497,093 / 51%	678,276 / 57%
라이선스	1,732,289 / 57%	1,063,358 / 36%	1,476,772 / 44%	1,105,366 / 38%	384,720 / 33%
내한공연	180,130 / 6%	413,369 / 14%	359,000 / 11%	307,744 / 11%	117,019 / 10%
전체	3,052,181	2,969,343	3,381,214	2,910,203	1,180,015

<표6> 2016~2020년 창작, 라이선스, 내한공연 뮤지컬 관객 수

<표5>와 같이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창작뮤지컬과 라이선스, 내한공연의 작품 수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을 예외로 한다면 창작뮤지컬의 작품 수는 전체 490편 내외로 전체 뮤지컬 중 70%대를 차지했다. 라이선스 뮤지컬의 작품 수 비중이 20% 초반, 내한공연이 7~8%대를 유지했다. 2016년까지는 창작뮤지컬의 작품 수가 월등히 많았지만, 관객 수나 시장은 라이선스 뮤지컬보다 적었다.

2016년 전체 작품 수의 25% 불과한 라이선스 뮤지컬이 관객의 57%, 매출의 67%를 차지했다. 라이선스 뮤지컬의 관객 수와 매출이 높은 이유는 대형 작품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날들> © 인사이드엔터테인먼트

평균 공연일수가 많기 때문이다. 평균 티켓 가격도 창작뮤지컬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6년 인터파크에서 판매한 창작뮤지컬의 평균 티켓 가격은 5만5천 원이었다. 반면 라이선스 뮤지컬은 8만7천 원으로 약 3만 원 정도 높았다. 이 차이는 2019년과 2020년으로 가면 약 4만 원 까지 벌어진다.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창작	55,358	57,525	64,698	57,361	46,502	56,289
라이선스	87,361	85,580	94,483	96,636	85,844	89,981
내한공연	89,984	97,445	119,290	105,716	123,087	107,105

<표7>2016~2020년 창작,라이선스, 내한공연 뮤지컬 평균 티켓 가격(매출액÷유료관객수, 인터파크 제공 자료 재구성)

라이선스 뮤지컬에 관객과 시장의 집중되는 현상이 2017년부터 완화된다. 라이선스 뮤지컬의 작품 수 점유율은 25%에서 22%로 3%p 줄어들지만, 관객 점유율은 무려 57%에서 36%로 급감하고, 매출액 점유율은 67%에서 44%로 떨어진다. 2017년 창작뮤지컬 역시 전년도 대비 작품 수 비율이 2%p 감소하지만 관객 점유율은 오히려 37%에서 50%로, 매출액 점유율은 26%에서 36%로 급상승한다. 2017년 블록버스터급 창작뮤지컬 수가 많아지고, 창작뮤지컬이 관객 동원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공연 기간을 늘려갔기 때문이다.

2017년 이후 전체 시장 그래프는 라이선스 뮤지컬의 그래프와 유사하게 전개된다. 그만큼 라이선스 뮤지컬의 매출액 변화가 전체 뮤지컬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다. 여전히 작품 수 비중이 20% 정도인 라이선스 뮤지컬이 50% 정도의 매출액을 산출하고 있다.

2017년 이전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수치이지만 여전히 한국 뮤지컬 시장을 주도하는 건 라이선스 뮤지컬이다. 그러나 창작뮤지컬 시장이 매출액 30% 중반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 서서히 증가할 가능성을 보인다. 레퍼토리로 올릴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창작뮤지컬이 10여 편에 이르렀고, 라이선스 뮤지컬과 흥행을 견줄 만한 중소극장 창작뮤지컬이 꽤 많이 등장했다. 또한 EMK뮤지컬컴퍼니, 오디컴퍼니, 신시컴퍼니, CJ ENM 등 국내 대표적인 뮤지컬 제작사가 신작 대형 창작뮤지컬 제작 계획을 밝힌 상태이다. 앞으로 창작뮤지컬의 시장은 좀 더 성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